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⑯ 경기 군포 수리사 고욤나무

좋은 일 있으면 좋겠구나! 대단히 좋은 일이!

전통 패턴이 바뀐 예측 불가의 날씨로 곤혹스러운 계절,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 절로 향하는 발걸음이 갑자기 무거워진다. 차단기를 지나 군포 2경으로 불리는 수리사를 오르는데 지난 폭우로 쓸려간 돌들이 길 옆에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로 흙과 시멘트 간격이 드러나 있어 붕괴 두려움도 일고, 마르지 않은 숲에 갇힌 게 답답해 한바탕 폭포수라도 쏟아낼 듯한 음험한 기운에 움찔한다. 그래서 주문을 외운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사 가는 길이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다. 어린 시절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 마법처럼 입에 담았던 문장이 〈천수경〉 첫 구절이라는 걸 안 뒤 아무 때나 꺼내지는 못 한 것 같다. 나 편하자고 막말로 악업을 짓는 자에게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은 극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장애다.

그래도 관심사라고 나무를 주의 깊게 보니 서해안에서 잘 자라는 비목이 잎을 번들거리고 있다. 군포(軍浦)에 포구의 포(浦) 자가 있으니 배가 드나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내륙은 아니라는 지형 파악이 이어지는 가운데, 염색을 한다는 모시풀도 보고, 속명이 seoulensis(서울의)인 토종 식물 가는장구채도 신명나게 꽃을 피우고 있고, 꽃망울 자태가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가는여뀌에 눈길을 주다 보니 석축 위 하늘같은 일주문이 부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걸 알려준다.

높이 489m의 수리산 남서쪽 중턱에 자리한 수리사는 문화체육부 지정 전통사찰 제86호이다. 신라 진흥왕(540~576년) 때 창건되었다고 하니 천년이 넘은 고찰이다. 당시 왕손인 운산대사가 '몽불수기(夢佛受記)' 그러니까 부처님을 친견하고 당대에 반드시 부처가 된다는 기별을 받아 견불산(見佛山)이라고 오랫동안 부르다가 수리사(修理寺) 이름을 따서 수리산이 되었다는데, 군포 이름 유래처럼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수리산과 수리사를 바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인 수리사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대웅전 등 36동의 전각과 12개의 부속암자를 지닐 정도로 규모가 컸으나 임진왜란 때 파괴되었다. 이후 홍의장군으로 불린 곽재우 장군이 절을 재건해 말년에 입산수도하였고, 근세에 들어 경허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며 약 200여 명의 대중과 함께 선풍을 드날렸다는 곳이기도 한 수리사는 한국전쟁 때 또 모두 소실되었고, 지금의 수리사는 그 이후 모습이고, 현재도 불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군포 수리사 대웅전 가는 길에 있는 300년 추정 고욤나무.

일주문을 통과해 계단을 오르니 갓 쌓은 듯한 석축이 보이고, 옆길로 그곳을 지나야 대웅전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 걸음을 재촉한다. 그때 눈에 들어온 나무는 흙을 덮은 파란 비늘 위로 우뚝 솟은 은행나무인데, 가는 사이 감 같은 열매가 녹색 잎 아래 푸르게 익어가고 있는 게 마음을 잡아당긴다. 그래서 곧바로 나무껍질을 보니 감나무 같기도 하고 돌배나무 같기도 한데, 지나는 어르신이 나무를 보는 게 좋았는지 불쑥 말씀을 하신다.

"수리사가 자랑하는 고욤나무입니다. 한 3백년은 되었을 거예요."

나무도 유한의 수명이 있는데, 3백년 되었다는 고욤나무는 난생처음이다. 들뜨면서도 즐겁게 살피는데, 조금 위에 있는 은행나무보다 키가 너무 작다. 오래 살았으면 고욤나무 최대 크기인 15m가 되어야 할 텐데, 절반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래서 연유를 물으니, "모르죠. 벼락을 맞았는지, 어땠는지"라는 답이 온다. 그래도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감보다 작은 열매를 매달고 있는 고욤나무는 아름답다. 밑둥 속이 썩어 비어 있어도, 그 위에 고목을 분해시키려는 하얀 버섯이 피어 있어도, 감나무의 대목, 감나무의 어머니 고욤나무는 눈물 나도록 빛난다. 우리가 달게 먹는 감나무의 감은 야생의 고욤나무를 오랫동안 개량해 만든 인공 열매이기 때문이다.

고욤은 순 우리말이다. 감나무를 한자로 시(柿)라고 쓰는데, 작은 감이 열리니까 소시(小柿)가 된다. 얕잡아보거나 귀여운 거를 예전에 '고'라고 해서 앞에 '고'가 붙었고, 뒤에 '욤'은 '어미'의 옛말이다. 이름에 이미 어머니가 들어가 있다.

고욤나무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연결되어 아프게 대웅전 경내에 들어서는데, 그 옆 꽃이 피지 않은 코스모스 무리에 불쑥 솟은 부모은중경 삼층석탑이 또 아프다. 가까이 갈까, 말까, 불효자는 먹먹해지기만 한다. 그래서 또 주문을 외운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지극한 길상존이시여 원만성취하소서' 풀이는 어렵다. 그것보다 '좋은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이 있겠구나, 대단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지극히 좋은 일이 있겠구나' 라는 풀이가 확 끌린다.

불효막심을 뉘우치고 뉘우쳐 이제부터라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면, 어머니가 불효자를 용서할까? 하산 길 포클레인이 묵직하게 지나가 숲가에 발을 디밀고는 빌고 또 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구나! 나무 관세음보살.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⑮ 박정이의 '도갑사 통신'

아직 성불 못한 사람들의 성불을 위하여…

도갑사 통신/ 박정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월출산
도갑사 법당에는 아직 성불하지 않은 사람들
오체투지로 불 켜고 흐르는 불심에 떠서 가랑잎
가랑잎이 되어
서쪽 정토(淨土)로 가고자 하는 원력만 소리 없는
물레로 / 잣고 있다네
이곳에 재 넘어오는 바람은 가랑잎 닿는 대로
잎사귀 등에 제 소리를 복사해 넣고 있지만
잎은 애초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등 굽히며 있고
염불이라는 문자도 귀에 닳아 획이 삐쳐 달아나
면서 / 읽어내기 어렵다네
그대 산행이라면 도갑사에 들지 말아야 하리
골짜기와 능선을 지나 단풍에 물들이며
천지가 그리움인 듯이
야호, 천지가 처음인 듯이 짚어본 자리
들녘이나 이쪽 산 폭포에 그림자 지는 것
혹시나 무념인 듯이
선인들이 지나갔다는 길이
그대 그런 산행이라면 도갑사로 들지 말아야 하리
법당은 오래오래 전에 슬픔이나 무상 같은 생각
들이 / 기왓장 하나씩 얹어 놓고
비바람에 스치는 인연이란 이름들이 세월의 빛깔
채색해 놓으면서 집이 되었다네
아, 집에 무엇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여래 백여덟 번으로 가는 소리 없는
물레,
오체 안으로 삐거덕거리는 물레 돌리며 있고
재는 그 너머 또 다른 겹겹의 재를 넘어
제 온 길로 돌아가면
한밤 지나고 동트는 새벽
범종 소리에 발 얹고 갈 일이 까마득하다네
그 앞의 무릎이 나무며 길이며
바위라는 것만으로 아름답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들고 싶은 데가 집이라면
그대 도갑사로 들지 말아야 하리
도량 오르는 벼랑 그 아래 산 숲의 새 소리 귀
열고 / 차마 들지 말아야 하리.

–박정이 시집, 《오후가 증발한다》, 도서출판 명성서림, 2012–

아, 그렇구나. '도갑사 법당' 안에는 "아직 성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체투지로 불 켜고 흐르는 불심에 떠서 가랑잎/ 가랑잎이 되어/ 서쪽 정토(淨土)로 가고자/ 물레"를 "잣고 있다". 도갑사 법당 안 풍경이 수채화처럼 그려진다, 그것도 생 물감 뚝뚝 흘리며. 왜 수채화냐고? 생 물감 뚝뚝 흘리냐고? 가을이기 때문이다. 박정이 시인은 '가랑잎'이라는 시어 하나로 자신이 보내는 '도갑사 통신'이 가을임을 귀띔하고 있다. 가랑잎은 가을에만 볼 수 있으므로. 그래서 법당도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을 테고, 거기서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색색의 가을옷을 입고 있을 터이므로.

여기서 잠깐. 시의 법칙을 하나 알고 가자. 해석과 분석과 인식이다. 시는 그냥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내뿜는 것이 아니다. 시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내뿜는 건 맞다. 그러나 그냥 내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객관적 상관물(客觀的 相關物)이라는 필터를 통해 반드시 해석과 분석과 인식이라는 필터링 과정을 거친 뒤 내뿜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시, 진짜 시가 된다는 말이다.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란 무엇인가? 〈황무지〉로 유명한 T. S. 엘리엇에 의해 크게 발전된 문학이론으로서, 시인(창작자)이 표현하려는 자신의 정서나 감정, 사상 등을 다른 사물이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할 때 이를 표현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뜻하는 문학 용어다. 즉, 개인적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건을 통해서 객관화하는 시 창작기법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심리나 정서, 사상을 사물이나 사건, 자연물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 객관적 상관물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람의 정서(심리, 사상)와 간접화, 객관적 상관물(자연물)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나는 슬프다'는 표현은 객관적 상관물과 전혀 관련이 없다. 사람의 정서인 외로움은 있지만 자연물이 없고, 외롭다는 정서가 간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슬픈 사람인 내가 달을 보고 '저 달이 울고 있다' 고 표현하면 인간의 정서인 슬픔을 객관적 상관물인 달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했으니 객관적 상관물이 갖추어야 할 요소 세 가지를 다 갖춘 셈이 된다. 이른바 감정이입의 형태로 객관적 상관물을 표현한 것이다.(이상 위키백과 참조 및 인용)

시인이 어떻게 시의 주제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읽으면 시 읽기가 한층 즐겁고 맛도 깊어진다.

박정이 시인은 '도갑사 통신'에서 그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분석과 인식을 천부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아직 성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체투지로 불 켜고 흐르는 불심에 떠서 가랑잎/ 가랑잎이 되어/ 서쪽 정토(淨土)로 가고자/ 물레"를 "잣다"는 해석과 분석과 인식이 탁월하다. 시를 전혀 모르고 불교를 전혀 모르고 도갑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와 불교에 대한 친밀을 느끼고, 도갑사라는 절에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게 만들고 있다.

"아직 성불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도적 서술은 이 시의 절묘함을 더해주고 있다. 박정이 시인은 '충분히' 성불'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성불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아직 성불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으로서의 '겸허'까지 불어넣고 있다. 이번 호의 불교시 감상으로 박정이 시인의 '도갑사 통신'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 대목 때문이었다. "아직 성불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의도적 진술 속에서 필자는 다른 불교시에서 맛보지 못한 인간적, 참으로 인간적인 인간성과 겸허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불을 위해 법당에서 큰절(오체투지)하고 있는 모습을 "물레로/ 잣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대목에서 필자는 소름 끼치도록 시원한 서늘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박정이 시인은 가톨릭 신자다. 그럼에도 불교에 대한 이 같은 놀라운 사유는 불교가 이미 종교의 벽을 뛰어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정이 시인의 불교에 대한 '놀라운 사유'가 기대된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일일시호일

간질성 폐질환에 무너진
미얀마 청년의 일상

2015년 한국 찾은 민팡씨…호흡곤란…기침 잦아 병원 찾았다
폐 딱딱해지는 간질성 폐질환 진단…하루 병원비만 1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